



同憲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5 호

2010년 3월 1일

발행인 : 민 주 선

home page :

www.mnsan.or.kr

e-mail:

mnsan@hanmail.net

100-130 서울 종로구 순화동 215 바비엔 ■ 1607호 ■ 전화 : (02)6399-6500 / (02)720-8116 ■ FAX : (02)720-8117

‘2009 송년의 밤’ 성황



2010년 행복교육

행복이라는 단어는 참 진부하고 식상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웰빙(well being)이란 말처럼 여전히 행복은 사회와 개인의 주요 관심사이고,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특히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한국사회학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 청소년은 교육성취 부문은 최상위권에 해당하나 주관적 행복감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통계청의 200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48.5%에 달했다. 중학교 1학년은 41.7%, 고등학교 3학년은 54.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도 또한 여전히 높고,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2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에서 볼 수 있듯이 괴도한 가계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행복감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교사들의 만족감 또한 열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는 최근 1~2년간 떨어졌다는데 응답이 55.4%에 달하고, 반면 상승했다는 응답은 11.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이 조사대상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교육주체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떡 없이 낮은 행복지수들은 학교 교육을 과정으로 누리지 못하



李 元 勳
한국교총 회장

고, 또 교육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와 유용성이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문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는 높은 교육열과 그 교육 열에는 학벌과 성공을 향한 획일적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성, 교육주체들의 행복감 증진에는 멀리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본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문화는 학습의 과정에서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수단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평준화체제로 상징되는 경직된 공교육체제로는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더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자 사회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교육에 대한 행복감이 충만해야 사회의 미래도 밝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다니는 학교, 교사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 韓範大人 모두가 走向해야 할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同志會報 발송에 관한 案內

本 同志會報는 每回 15,000부 정도를 인쇄 발송하고 있는 바, 住所不明 등으로 每回 500여부가 반송돼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창회에서는 반송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人力 및 경비(1회 발송비 600만 원 정도, 연간 2천여만원)의 낭비가 막심합니다.

이에 앞으로 주소 변경 未申告人과 會費 2회이상 未納人에게는 부득이 會報發送을 중단키로 하겠습니다. 會報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점을 請知하시고 同志會 홈페이지(www.snuessa.or.kr)에 게재된 會報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09 송년의 밤 盛了

2009 송년의 밤 행
사가 12월 1일(火) 프
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뱅크홀에서 18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되었다.

이날 송년의 밤 행
사에는 회장인사와 서울대 총동창회장 축사(손일근 상임부회장
대독)에 이어 세계 頂尖의 금속활자본 '직자금제묘설'을 발급한
역사와 3회 총업의 바탕판 바사를 '파랑스런 서울대 시대인'으로
추대했다.

영어와 동문회장 고윤섭(裕·65.1)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
과 예술에는 이미우 한울무용단의 전도복음, 유태호(裕·68.1)
동문의 자작시 '새해' 낭송, 고윤섭 동문의 판소리 한대목(심청가
중에서), 이숙경(國·68.1) 동문의 '정남교방문' 등 다채로운 공
연이 있었고, 각자별, 동호회별 소개와 참가자 중 최고참 동문,
박내동문 선정, 특히 학회(화학회) 특별 시상과 경품 추첨 등
행사가 예약한 가운데 즐거운 한때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 동문이 손에 손을 맞잡고, '반남', '교
가재창'으로 회장의 2010년을 기원하며 2009년 송년의 밤을 마
쳤다.

이날 행사에는 변주선 동창회장과 동창회 일원, 정원식 전 국
무총리, 손일근 서울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박연수 서울대 총
동창회 사무총장, 우인섭 고문, 김남수 원로시인, 안상수 인천시
장, 박호섭 전 서울시 부시장, 김경희 서울시교육감 자무대령, 이
철원 한국교총회장, 김대환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성렬 한국교육
과학기술기관장, 전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정식 청연회장,
윤용희 청랑회장, 조창섭 청사코리아 회장, 권재승 한국교원대
총장 및 각자 동문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2009 송년의 밤 행사지원을 감사드립니다.

2009 송년의 밤 행사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변주선 동창회장 300만원 종합김진권 3대
- 최용준 천재교육회장 300만원 수첩, 탁상용 가endra, 가endra 250개
- 정랑희 윤용희 회장 100만원
- 여성동문회 김밥순회장 20만원
- 권재승 교원대 총장 30만원
- 우인섭 고문 20만원
- 최병호 다산대표 20만원

■ 장학금 규모 확충

- 張忠植 동문의 출연으로

본회 설립 淸冠獎學會는 그 동안 매년 1,2학기 때 每校 재학생
을 4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2010년 1
학기부터는 장학금 수혜자 수를 學科 수대로 크게 늘어 매년 1,2
학기 각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였다.

이는 회장인 '법은장학재단'의 張忠植(張忠植) 이사장께서
매년 4千萬원의 장학금을 계획하고 함께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장학금의 지급 및 수혜자 선발은 다음과 같다.

- 장학금 (1) 법은장학생 : 200만원 × 10명
- (2) 청관장학생 : 등록금 전액 × 4명
2. 수혜자 선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3. 지급시기 : 매학기 등록 전
4. 신청 및 문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清冠獎學金 지급

- 范恩獎學金 10명도 함께

淸冠獎學會는 2010년도 1학기 장학금을 재학생 15명을 선발하
여 지난 2월 23일 지급하였다.

가. 청관장학금

학과(학년)	성명(학자)	금액(등록금)
교육학과(4)	신간나(申干娜)	2,537,000원
미사교육과(3)	홍상희(洪相熙)	2,512,000원
수학교육과(4)	기준영(奇潤英)	2,545,000원
생물교육과(3)	임고은(林高恩)	3,279,000원
화학교육과(4)	이규리(李圭利)	3,087,000원

나. 법은장학금

학과(학년)	성명(학자)	금액
국어교육과(4)	송홍란(宋鴻蘭)	
영어교육과(3)	윤지영(尹智英)	
독어교육과(3)	이소영(李素英)	
불어교육과(3)	김나영(金拿英)	
사회교육과(4)	최은경(崔銀慶)	
자리교육과(4)	조아영(趙雅英)	
윤리교육과(3)	전경화(全卿化)	2,000,000원
동리교육과(3)	김종인(金鍾仁)	
지구과학교육과(3)	이기영(李基英)	
체육교육과(3)	엄태원(嚴太元)	

회보 164호 '동문동정'란에서 高永基(高永基·72) 체육학 박사를 교육학 박사로 정정합니다.

이 회보는 천재교육 崔容準(崔容準·61) 회장의 厚意로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 '直指心體要節' 발굴한朴炳善 박사

- 자랑스러운 서울大師大人으로 추대



본 동창회는 지난 12월 1일의 '2009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본** 「直指心體要節」을 박물관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朴炳善 박사(역사·66人)**를 '자랑스러운 서울大學校 頌範大人'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동창회 회장단은朴 박사가 입원해 있는 수원의 성빈센트병원으로 문봉하여 추대패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추대패를 전달받은朴 박사는 "지극히 자랑스럽고 만족한다"면서 위로금을 사양하기도 했으나, 조속히 배우하시리는 등문 후배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는 설명에 위로금을 접수하였다.

이날 역사와 동문화에서도 회장단이 함께 동행하여, 역사와 동문화에서 모금한 금일봉을 전달하고 위로해 드렸다.

다시 한번 우리 사생대 동문 모두가 자랑스러운朴炳善 박사의 경예를 두둔 모아 봤다.

■ 朴炳善 박사로부터의 편지

면 회장님,

안녕하세요?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보내주신 한자 선물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간의 제의 치료를 위한 기도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힘을 얻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을 받아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속히 쾌복가 있어 회복되기를 바라며,

뜻다한 일을 수행함으로서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마다 청룡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2010. 2. 10.
박병선 드림

■ 졸업생들에게 카드지갑 선물

동창회는 2010년도 전기 졸업생들에게 '카드지갑'을 선물했다.

그동안 졸업선물로 제공했던 "문집"은 활용성이 낮아 별로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증정된 지갑은 소가죽 원단에 서울대 마크가 입인 원 시중가 24,000원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다 활용받고 있다. 이 지갑은 사생대학 동창회에 신규로 가입(가입비 만원)하는 졸업생들에게 증정되었다.

■ 師大新入生 전원에 책 선물

- "民主主義 教育의建設" - 서한샘 동문이

동창회는 2010년도 師大 新入生 전원에게 奚天錫 박사의 저서 "民主主義 教育의建設" 1부책을 선물했다.

이 新入生 선물은 한때 EBS 명강의로 명성을 떨쳤고, 국회의원과 서울시 교육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시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인터넷 「앞세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서한샘 동문이 모든 비용을 부담, 동창회에 지정 기탁한 것이다.

이 책은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당시 「教育法의 제정」, 「教育課程 확정」, 「교과서 편찬」, 「教育制度 정비」와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기틀을 다지신 奚天錫 박사께서 「民主主義의 개론」을 정비하고 「새교육」 등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1958년에 집필한 책인데, 지금도 민주主義에 대하여 가장 잘 정리한 책으로 오늘날 民主主義를 깊이 알고 배우고, 혼란을 아기시키는 이들에게 경종을 주고, 미래를 걸어갈 젊은이들에게 民主主義를 읊바로 알게 하고, 民主本質으로서의 품성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어, 특히 德性教育을 담당한 師大生 必讀書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어 "서한샘" 동문이 특별히 기증 선물하게 된 것이다.

"서한샘" 동문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朴炳善 박사를 도웁시다.

역사교육과동문화(회장 김진국)는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본** 「直指心體要節」과 병인양요 때 악탈당한 강화도 와규장각 도서 297책을 찾아낸 서지학자 朴炳善 동문(역사교육과 3회, 89세)의 명원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모금계좌 : 농협증인회 079-02-873224

(유용태 의사/발전)

송금하실 때 송금 내역에 학과명과 학번,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역사과 72 김00).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박병선 동문이 하루 속히 회복하여 당신이 계획하신 연구를 조속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甲辰>

이영덕 선생님 영전에

이영덕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암후 같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시어, 민족과 국가의 중심에 서서 모진 비바람과 격랑을 온몸으로 헤치며 살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였고, 열정적으로 일하였고,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온몸을 바쳐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자신과 가족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이 대단 같아 크고 귀중한 것인가에 저희들은 '우리 선생님'을 한 없이 존경하고 한 없이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제자와 후학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귀중한 교훈을 남기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바칩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북화해와 협력문제, 국가발전정책 추진, 교육정책개발과 교육개혁, 문화시민운동 등을 통하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저희들도 모두는 선생님이 보여주신 성실과 열정과 큰 애목과 희생정신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치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 이 세상의 삶에서 선생님과 작별하여, 천국으로 가시는 길을 활동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천국을 향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모님과 딴님 아드님 또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지혜하십니까. 특히 사모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선생님의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병하였습니다. 그 사모님을 홀로 남겨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과 잠시나마 헤어지는 것이 참을 수 없어, 고생스러운 투명을 계속하신 것을 저희는 압니다. 사모님께서도 선생님의 존재가 너무도 크기에, 잠시라도 더 선생님을 이 세상에 불들이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미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선생님을 활동합니다. 힘들었던 세상 짐을 이제 빼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신 선생님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위로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애도합니다. 이 세상의 정에서 빼어나지 못한 저희는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이 전디기 어려운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님의 시간 속에서 머지않아 모두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지만, 그래도 끝이나는 슬픔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자 김선일 삼가 올립니다.

2010. 2. 9.

※ 金信一(歿 0.50人)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부음기사는 14명)

■ 會長 勳部 (09.10.29~10.2.28)

09. 10. 29. 韓國民族史 이사장
10. 30. 여성비축미래상 수상
11. 16. 각과 통문회장 회의
11. 24. 사대 교육협력센터 기공식 참석
12. 1. 2009년도 「술년의 밤」
12. 7. 박병선 박사(역사 3회 출) 문예
12. 9. 경대통·전 대통령 노벨사 수상기념식 참석
12. 16. 韓연회 「술년의 밤」참석
12. 23. 古稀症 개회
10. 1. 12. 회관전집추진위
11. 14. 서울대·통일대·신년교례회 참석
11. 15. 상임이사·각과통문회장·통호회장 학회회의
2. 17. 韓蹟장학회 이사회
2. 23. 韓蹟장학회, 벌은장학금 지급

金善浩敎授 · 59 전 안현대 교수

崔多厚歷史 · 59 본 회 고문

李秉衡敎授 · 59 본회 고문

李圭衡敎授 · 59 전 교육부총리

鄭敬植敎授 · 59 전 교육부 차장

金大浩敎授 · 59 전 한수대개발사 회장

鄭元植敎授 · 59 전 한국교원대 총장

李福浩敎授 · 59 본 회 감사

金信一敎心 · 59 학습사업연구네트워크 회장

金信一基敎行 · 59 전 구미외대 교수

金信一河敎行 · 59 전 통일교육원 교수

朴弘治敎生 · 59 영재교육사 회장

金千模敎育 · 60 전 구미고 교장

鄭斗敎育 · 60 한국국제아이해교육학회 회장

崔應朝(英道) · 60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裴信一敎行 · 60 전 고사

李福衡敎授 · 60 전 대전대 교수

朴善淳敎授 · 60 본회 고문

金大顯敎授 · 60 여성부 회장

權 勳敎授 · 60 한림대 명예교수

林東浩敎育 · 60 본회 사업단장 부회장

李善鎭敎授 · 60 세교사

李相浩(化學) · 60 서울시 교육위원

李恩熙敎心 · 60 전 외국어대 교수

權應寧(敬行) · 60 전 중앙일보 이사

崔容華(敬學) · 60 전 청교도 회장

鄭信雨(體育) · 60 한국스포츠심리연구원장

崔慶植(體理) · 60 지리교육과 통문회장

鄭應根(體育) · 60 세교교육과 통문회장

朴景賢(體韻) · 60 여성부 차관

徐南詒(體韻) · 60 앞세 방송 회장, 전 국회의원

金良榮(生物) · 60 여성부 총무

俞貞淑(體育) · 60 본회 감사

李士周(體味) · 60 세구 과학과 통문회장

柳子平(體語) · 60 국 세관판법 이사장

李炳好(英道) · 70 전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

李元熙(體語) · 71 한국교총 회장

朴成植(體育) · 74 서울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朴英植(英語) · 76 번호사

朴德熙(英語) · 77 솔성대 교수

蘇原泰(英語) · 77 경북신문 선임기자

김재복 · 전 경인대 대총장

오인탁 · 연세대 명예교수

정병구 · 오대교원아트홀 고문

장석우 · 인원대 석좌교수

허 훈 · 전 중앙대 교수

■ 동창회來訪 人士

(09.11.1~10.2.28)

- 金吉西敎育 · 49 서울대 명예교수
朴督徳歷史 · 49 본 회 고문
馬寅賓歷史 · 47 본 회 고문

■ Study In EU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9년 10월 26~29일, 사범대학은 유럽 6개국 교장단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 협력 협정 체결을 하였다.



■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기공식

2009년 11월 24일(화), 사범대학은 이강무 서울대 총장, 조영남 사대 학장, 박주선 동창회 참석한 가운데 사범대학 12동 대형강의실 건립 및 기초사범교육 협력센터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공사완공 예정일은 2011년 2월이다.



■ 서울시 과학전시관 교육협력 협정 체결

2009년 12월 3일(목), 서울시 과학전시관 대회 의실에서 과학전시관(관장:高永賢(生, 71人)) 학생 교육봉사 공동 수행 등 교육협력 협정 체결하였다.



■ 사범대학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2009년도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인" 수상
2009년 12월 15일(화),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09년도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인"에 정민보 명예교수(자랑스러운 사범대학상), 최용준 회장(사범대학 발전공로상)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다. 본 상은 교육발전에 공헌이 저대하고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며 사회봉사로 그 업적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명예를 현지화 드높인 사범대학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시흥시 교육협력협정 체결

2010년 1월 14일(목), 사범대학은 경기도 시흥시와 학관 협력 사업 진행을 위한 교육협력 협정 체결하였다.



■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

2010년 2월 26일(금), 본교 종합운동장에서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사범대학은 학사 229명, 석사 118명, 박사 29명 총 373명이 졸업을 했다. (명단은 17p에)

■ 모교 제32대 김종욱 학장 취임

지난 2월 23일 사범대학 제32대 김종욱 학장이 취임했다. 김학장은 지리교육과(71~75년)를 나와 독일 이렌문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88년부터 모교 지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아울러 학생담당 부학장에는 박성희(81人) 사회교육과 교수, 교무담당부학장에는 홍흔기(77人) 화학교육과 교수, 기획부학장에는 안현기(80人) 영어교육과 교수가 함께 취임하였다.



原稿 모집

제106호 동창회보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발간시기 : 매년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 원고마감 : 발간 1개월 전
- 회보형태 : A4(국내면) 16면
- 모집항목 :
 - 各科 同門會 소식
 - 各市道支會 소식
 - 各 동아리 모임 소식
 - 同門 個人 紀念, 人事, 慶弔事
 - 詩, 隨想, 詞譜
 - 동창회에 대한 간의사항 등.
- 보낼 곳 : 우편)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비밀번호 3차 1807호
E-mail) smueea@hanmail.net

* 가급적이면 기고자의 E-mail 주소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教育學科

◆ 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11월 19일(목) 오후 7시부터 호암교수회관에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현재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金明洙(75)** 동문이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명수

◆ '2010년도 교육학 신년고례회 개최

지난 1월 2일(토) 오후 3

시부터 모교 소담마루 3층

(舊 동원생활관)에서 교육학과 동문가족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문회 학과가 함께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매년 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경기적으로 개최되며, 동문들이 서로 만나 소식을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英語教育科

- 지난해 8월 21일(금), 화성 상록골프클럽에서 친선골프대회 개최했다.
- 지난 1월 7일(목)에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행례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전통무용을 이미우, 팝가수 박현을 초청하여 무용과 음악의 향기를 맛보았고,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정민권(08), 이정은(08)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였다. 朴柱仙 사대 동창회장, 沈明洙 명예교수, 朴誠謙 전 동문회장의 덕담이 이어졌고, 楊廷錦 모교학과장을 막중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서울대 문과계 최초로 부교수 승진과 함께 보장받은 모교 오선영 교수(91)를 소개하여 동문들의 축하를 받았다. 여흥시간에는 다양한 주제의 퀴즈를 제시하여 참석자 전원이 끝고루 상품을 타는 기회를 가졌고, 참석자 전원에게 고급 스포츠양말세트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폐회 후 해어치기가 이어진 70학번대 동문들과 高潤熙(69) 회장 등 10여명은 근처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두시간 가까이 정답을 나누다 해어졌다.



◆ 행사안내

4월에 봉사활동을 한자리 갖기로 하였고, 5월에 모교에서 정기총회를, 8월 중 골프대회와 10월 중 문화공연 전람을 계획하고 있다.



■ 獨語教育科

지난 1월 14일(목) 신년회를 가지고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다. 樂聖鑑(88) 국회의원 전임회장에 이어 金明洙(75) 전 문화관광부 장관(前副部長) 신임회장이 선출되었으며, 陽榮洙(74) 전 시스코 시스템즈 대표(이사), 朱厚範(74), 한국경영컨설팅 협회 수석전문위원, 横오현(76), 서울대 교수 부회장이 2010년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김경관



■ 社會教育科

사회교육과 총동문회(회장:주자문, 65)는 지난 1월 8일에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주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부면부회 40여학번까지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모교의 은사님인 이영기, 윤동학, 손봉호 명예교수님의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로 자리였다. 한편 사회교육과 총동문회는 이번 행사를 끝으로 주자문 회장이 회임하고 신임회장으로 최현섭(87) 前 강원대학교 총장(前) 동문을 새로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최현섭



■ 歷史教育科

• 역사교육과 동문회(회장 김진관) 임원진은 자자설제(自作設制) 결(立誡) 적지(積之) 대표 박병선 선배(66)의 캐유풀 기원하는 성금 1,104만 원을 모금하여, 12월 7일 오후 8시 수원상민센트럴원에 임원 중인 박병선 선배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사대 동창의 김창칠 상임부회장, 김영길 부회장으로부터 12월 1일 사대 동창회의 '승년의 밤' 때 증정한 바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학 사생대학인' 공로패와 멜도의 성금을 받으셨다. 박병선 선배님은 사생대학을 비롯한 역사교육과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무척 기뻐하셨으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명인양교에 관한 연구를 같이하고 싶다고 하셨다. 현재 바 선배님은 힘든 항암치료를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이 많이 회복하였다. 그간 성금 모금에 불瘟양면으로 기울여 주신 동문분들께 감사드린다.



• 지난 1월 8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역사교육과 동문회 신년모임을 가졌고, 이날 신임회장으로 陽榮洙(89) 영남대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원고 선생님들께서 새해 덕담을 듣는 한편, 송상현(역사교육연구회 회장, 광주교대) 등

문의 역사교육연구회 현황보고, 김덕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동문의 서울대 벌인화 현황 발표, 박진동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동문의 개정 교육과정 관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져 새해 인사와 도록을 걸한 뜻깊은 신년모임을 가졌다.



김덕수

■ 數學教育科

• 지난 1월 11일(일) 약도록 1,11로 정하여 7년째 계속하고 있음) 서초역 부근에서 초고압크레서에서 약 100명이 참석하여 조촐한 모임을 가졌다. 본회회장 李秉輝(65人)은 몇년사이 험난한 동문모임이 되었고, 앞으로 새 회장(林浩秀, 68人)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지고 한다.

동아 대신, 바둑, 꿈풀 중심으로 동창들의 결속을 다지고, 카페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수학교육에 대한 심도깊은 도록, 경조사 안내 및 조기 배송, 기념회비의 납부를 통한 기별모임의 활성화 유도, 모교 수학교육과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경제보조, 모교운사 김현식 선생님의 초기동창회의 고충 및 발자취를 걸드는 축사, 동아리회장들의 경과보고 및 앞으로의 활동계획 발표 등으로 1분 행사로 마치고 부폐식과 후 2분에서는 앤드류정보기술(사장 李善浩, 70人)제원들의 도움으로 전람가사를 단체3팀으로 나누어 인터넷을 통한 웃돌이 시립을 통하여 전시하여 강당을 차등있게 나누어 주었다. 동산이 힘든 동문들을 위한 행사로 지난 해에 고궁 산책, 북촌마을 밭방동의 행사를 시행하였고, 갑작스런 한파로 인하여 연기된 북아트제강을 빠른 시일대로 학회하고 한다. 한편 국어교육과 동창회와의 친선마주회를 작년에 성공적으로 치른 바둑동아리, 처음으로 시선제를 성대히 준비한 동산동아리, 2개월마다 월드를 누빈 골프동아리들의 활동이 올해에도 더욱 더 활발히 이어 나가고 지난 해늦게 벌죽한 여성회원들만의 동아리(회장 李善浩, 75人)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秉희



조언과 출입증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당부를 했으며, 학생들은 은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였다.

◆ 물리교육과 총 동창회

지난 해 12월 5일(토) 낙성대 입구에 있는 배상길비에서 2009년 정기 동창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동창회비 회무 보고, 신임 회원 소개 등이 있었다.



박성일

■ 生物教育科

◆ 신임회장에 方在植(方在植) 교수 추대

지난 1월 8일 생물교육과 동창회(회장 安泰仁)는 金道敷, 李周植 모교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9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회비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날 신임 개선에서 중남대학교 생물과학과 方在植(方在植)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方在植 회장은 충남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 학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과 충청권경경제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물교육과 동문회는 현재 1,500여명의 동문이 회원으로 있으며, 매년 하반기 태尼斯대회, 배드민턴대회, 충남대회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 10회 동문 모임

생물과 10회(53~57) 동문 모임이 지난해 12월 13일 강남가정식당에서 충년모임으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10여명 중에서 6명(뒤에서 표기) 박, 바상근, 앞에서 김재호, 장일원, 배승준, 양장수이 오래 간만에 모여 함께 회식을 하면서 지난 이 아기와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맛있는 한식과 술한잔을 나누었다. 출입한지도 어언 50년이 지난 모두가 백발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동심으로 돌아가 지난 추억에 모두 즐거움 한나절을 보냈고, 다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모이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아쉬움의 이별을 썼다. (기사 작성: 명동안과 김재호 원장)



■ 物理教育科

◆ 출업논문 포스터 발표

지난해 12월 25일(수) 학부생의 출업 논문 최종 발표와 대학원생의 출업 논문 중간 발표가 있었다. 포스터 발표를 통해 학생을 서로 간의 논문 내용을 알 수 있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 출업예정자 사은회

지난해 12월 5일(토) 2010학년도 2월에 출업예정인 학부생들과 교수님들이 사은회를 가졌다. 교수님들은 학생의 진로에 대한

■ 體育教育科

◆ 제우회 서울시지부 체육대회

지난해 11월 1일(일)에 제우회 서울시지부 체육대회가 열렸다. 총 4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테니스대회와 전악선 등산이 시작되었다. 2시간여의 테니스 대회 예선과 등산을 마치고 대학원 기숙사 식당에서 종식시간을 가졌다. 본 대회에 높은 참석률을 보인 강남지부에 격려금 전달이 있었다.



◆ 예비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체육교사 미리 경험하기 개최

지난해 11월 6일(금), 사립대

학 교육정보관에서 개최된 본

세미나에서는 강사사, 교장 및

교감, 체육부장, 신참교사의 입

장에서 생각하는 체육교사의

역할 및 라디칼 체육교사의 향후 전망, 바람직한 교사상, 체육교사 이해하기 등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내목 및 능력 등을 소개하여주며 일깨워 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발표에는 김영조(74년, 서울시교육청 청교체육보건과장), 이경임(75년, 개포고교교감), 정준호(72년, 서울시내대부수중교사), 김기철(61년, 강서공고교사), 이정민(61년, 누원고교교사) 등분야 밝아주었다. 특히 본 세미나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임용제공 및 교과과정에 변화에 따른 체육교사의 향후 전망 등 예비교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진로고민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제28회 무용부 경기공연 '춤의 숨결'

지난해 11월 13일(금), 제28회 무용부 경기공연 '춤의 숨결'이 서울대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은재(07), 이수현(07), 이은혜(07) 학생의 흥겨운 전도복 춤을 시작으로 호남지방 웃김굿의 전진춤, 빙대작품 세 마리 배고, 동래하춤이 차례로 선보여졌으



며, 이번에 공연된 동래하춤은 예쁨방학 전수활동의 일환으로

2학기 3월간 서울대 한국무용실에서 이성훈 선생의 지도하에 전수된 작품이다. 전통과 현대



를 이루는 다양한 꽃들을 무대에 담고자하는 시도로 'Great Galloping'이라는 개념법률을 통해 모던발레의 다양한 표현기술을 기꺼이 범례 특유의 우아함은 물론 세련된 테크닉이 돋보이는 작품을 구성하였고, 한국무용 창작 '乙巳의 춤'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학생들의 시각으로 재조망하여 상징적인 메시지와 깊이가 융축된 꽃들을 보여주었다. '배금도 펜워커 강강술래'를 끝으로 공연의 대단원이 마무리되었으며, 2007년 전수 이후 3년째 전개해 오는 웅위기 강강술래는 전보다 더욱 신명나고 탄탄하게 재구성되어 그 완성미가 돋보였다.

◆ 2009년 경기종회 및 송년간담회 개최

지난해 12월 14일(토), 2009

년 경기종회 및 송년간담회 행

사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190

여명의 많은 동문이 참석하였



으며 2009년도 사업 실적보고 및 결산이 이루어졌다.

■ 停年退職 (2009. 2. 28)

崔相士(化學 653년) 애사고등학교 교장

金在晉(體育 653년) 경기체육고등학교 교장

許川行(體育 660년) 원주중학교 교장

朴正漢(體育 662년) 신도립중학교 교장

金銀熙(歷史 663년) 원주중학교 교장

趙慶日(數學 663년) 청원중학교 교장

林建一(生物 663년) 청원중학교 교장

李英華(化學 672년) 문래중학교 교장

金安惠(教育 682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李敬勳(物理 682년) 청계고등학교 교장

朴水澤(數學 682년) 금문여자고등학교 교사

宋鍾鉉(體育 682년) 광주고등학교 교장

金台圭(數學 682년) 청남고등학교 교사

韓輔田(數學 682년) 경주중학교 교장

徐永洙(物理 682년) 경문중학교 교장

權基昌(地理 682년) 청진중학교 교장

宋永男(體育 702년) 인수중학교 교감

李相輝(體育 712년) 청평고등학교 교사

李相輝(體育 712년) 삼광고등학교 교장

朴正浩(體育 722년) 서울윤일고등학교 교사

李起浩(化學 753년) 경기고등학교 교장

黃桂英(英語 762년) 삼성고등학교 교사

許 東(物理 669년) 과학전시관관장

朴恩宋(生物 669년) 서 울가고등학교 교장

高甫吉(體育 669년) 남 구교육청 교육장

金台植(體育 700년) 거원중학교 교장

洪基櫻(體育 700년) 강릉고등학교 교장

金鐘根(英語 700년) 양성고등학교 교장

朴聖根(數學 700년) 원주중학교 교장

尹成浩(數學 700년) 강릉중학교 교장

任東元(英語 700년) 상암고등학교 교장

李培燮(體育 712년) 대왕중학교 교장

劉善植(社會 712년) 도봉고등학교 교장

尹成均(數學 712년) 원주중학교 교장

林文俊(數學 712년) 원북고등학교 교장

高基萬(生物 712년) 신유고등학교 교장

金吉南(物理 712년) 문고고등학교 교장

李培燮(體育 712년) 대왕중학교 교장

沈善均(地理 712년) 신도중학교 교장

鄭社萬(生物 712년) 청송고등학교 교장

李玉衡(社會 722년) 고등교육청 학부국장

白暉均(教育 723년) 부기교육청 교육장

尹基南(體育 723년) 종교고등학교 교장

洪愛英(體育 723년) 남부교육청 청학사

尹根大(地理 724년) 문래중학교 교장

金應甲(數學 724년) 경기고등학교 교감

鄭善台(生物 724년) 교육청 과학·영재교육과장

張基治(地理 724년) 청도고등학교 교장

金惠英(英語 725년) 신평중학교 교장

金士植(體育 725년) 성인중학교 교장

朴昌吉(體育 725년) 용마중학교 교장

李復深(體育 725년) 교육청 청중정책과과장

金日元(地理 725년) 인왕중학교 교장

李相浩(數學 725년) 강릉 중학교 교장

金基萬(物理 725년) 하계중학교 교장

丁多編(化學 725년) 용기중학교 교장

張 天(體育 729년) 서울고등학교 교장

鄭貴煥(英語 727년) 산업중학교 교장

金漢民(數學 727년) 교육청 중동정책과

고교체육전진화정책과

李明翰(教育 729년) 교육청 중동정책과

장학기획·장학과

李培基(數學 729년) 교육청 중동정책과·장학과

高麗吉(教育 729년) 교육청 중동정책과·장학과

朴成賢(社會 729년) 교육청 중동정책과·장학과

閔丙官(歷史 729년) 청량고등학교 교장

宋宇柱(地理 729년) 청량고등학교 교장

安在民(地理 729년) 교육청 중동정책과·장학사

安 數(數學 729년) 교육청 학교정책과·장학사

鄭桂明(物理 729년) 새내기고등학교 교장

李相熙(化學 731년) 청계고등학교 교장

朴光烈(體育 731년) 청계고등학교 교장

洪準國(地理 732년) 청송고등학교 교장

金昌煥(體育 732년) 청송고등학교 교장

鄭泰慶(體育 732년) 개 원중학교 교장

柳承源(社會 733년) 청평고등학교 교장

宋相浩(物理 733년) 청평고등학교 교장

朱光烈(地理 733년) 청평고등학교 교장

金榮華(化學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宋基善(生物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鄭泰慶(體育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閔慶信(體育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白承煥(社會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李基善(地理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朱光烈(地理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金榮華(化學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宋基善(生物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鄭泰慶(體育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閔慶信(體育 733년) 청학전시관 교육연구사

■ 教員人事 (2010. 1. 1)

朱光烈(生物 669년) 문정고등학교 교장

蔡兩士(體育 670년) 양진중학교 교장

金祖玉(地理 670년) 연수한국학교 교장

金鐘熙(生物 670년) 청평고등학교 교장

尹己國(歷史 670년) 한강중학교 교장

朴三祐(體育 670년) 용마고등학교 교장

金成烈(歷史 670년) 성수중학교 교장

李相浩(生物 670년) 청평고등학교 교장

金基萬(物理 670년) 하계중학교 교장

李相浩(生物 670년) 용마중학교 교장

吳義衡(化學 670년) 압구정고등학교 교장

吳義衡(化學 670년) 압구정고등학교 교장

교사의 기도

李 東 植 (英語·72)
KBS 정책기획센터장
청언회 회장

플로리다 주의 포트 라우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불렀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려 가는 젊은 남녀이나 가족인 그 버스의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까부터 그를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둘째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외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떠났지만 둘째치 같은 남자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여생사?

아니, 배를 타던 선생?

호기심에 기록 한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고리문 표정으로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는 날 아래에게 편지를 냈소.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청나루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지 가버릴 거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 자리에 물어 커다란 청나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저도한 간강정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웠던 듯 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안 저기 봐요, 저기……”

그때 승객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청나루가 운동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집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엔 하루도 그를 잊어 본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손수건’ 이런 제목의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이 샘터사가 발행한 ‘노란 손수건’이란 책. 전 세계에서 물결의 의지로 자신의 어려움을 끌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감동을 전해주는 것으로 1977년 1권과 2권이 잇달아 나온 이후 8권까지 이어지면서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는 명작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87년 태계한 천원(天隱) 오천석(吳天錫)



1901~1987) 박사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오천석 박사가 현대 우리나라 교육의 도래를 닦고 그 교육철학을 세운 분이란 것을 잘 모르고 있다. 1901년 광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신 오천석은 1927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931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8·15로 광복을 맞은 후 하지 중장이 부임한

이후 형성된 미군의 과도정부 3년 동안 문교부 차장·부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현대교육의 틀을 정하고 그 방향과 목표를 정한 것이었다.

해방 다음해인 1946년 여름 오천석 문교부 차장(지금의 차관)은 전국 교육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의를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을 가장 높은 가치로써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격의 평등성을 믿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개성의 존귀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남의 명예에 복종하는 탐욕적인 개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개인이기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교육은 시험·전체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자유민으로서 사회민으로서의 전 생활에 대한 교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은 고정된 사회에 대한 변동성 있는 인물의 교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변천하고 있는 사회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늘 성장하는 인물의 교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해방과 함께 일제로부터 학교를 이어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놓고 혼란을 겪을 당시에 오천석은 당당히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설파한다. 또한 교과서만 의존하고 교과서에 아이들을 가두는 교육이 아닌 아동들의 창조력을 기우고 개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교과서 만능주의의 교육은 적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과서는 그 양이 필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아동이 필요로 하고 아동이 원하는 자의식의 극히 일부분 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교과서는 그 안에 담긴 지식을 글과 독조로 생각하는 까닭에 실생활과는 인연이 있는 교육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교과서는 도시나 지방은 물

본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사용되는 2부에 차분한 도록한 요구
와 형편에 적합한 교육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헌석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 10쪽, 2009, 청민사)

이처럼 오헌석 박사는 이미 1948년에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놓았다. 오헌석 박사는 해방 직후 우리나라 문교 행정의 책임자로서 교육 제도, 교육 법 규, 교육 과정, 교과서 편찬 등 민주 교육 체제의 확립과 국립 서울대 설립안(국대안),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총) 설립을 주도했다. 1950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대한교육연합회장을 지쳐 1955년 한국교육학회장에 취임하였고 1960년 문교부장관을 맡아 4·19와 5·16이라는 격변기에 다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졌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현대교육의 아버지라고 하겠다. 그의 사상은 정원식 전 총리 등 후학들에 의해 면면히 계승되면서 우리 교육의 이념이나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에게 1987년 그가 태계하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인장」으로 치러졌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여러 방면에서 질타를 맞고 있다. 장학사들과 교장들의 비리사건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각급 학교의 입학부정사건이나 알몸동영상으로 충격을 준 학생들의 ‘종업왕’ 사건 등으로 교육계는 아마도 가장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직접 청기했다고 나서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별 처음 우리 교육의 기틀을 세운 오헌석 박사의 사상과 영향을 우리가 잊은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의 목표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일깨워 사회에 스스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으로지 좋은 대학을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거기에 이기적인 학부모들이 좋은 서서 돈을 갖다 바치는 현상이 이어지니까 학교와 교육계가 복미전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헌석 박사가 남긴 사상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새 길과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주여, 저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군림하는 폭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는 생명을 올바로 주는 어진 원정군(元征軍)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교인이 사랑과 이해의 향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체력과 꾸짓음을 공포를 영원히 추방하여 주

옵소서.”

모른다고 꾸짖는 대신에 동정으로써 일깨워 주고, 뒤집어진다고 의지를 전하고는 대신에 따뜻한 손으로 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잘못 간다고 책벌(責罰)을 주기에 앞서 관용으로써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저항한다고 동정하기에 앞서 예정으로써 뉘우칠 기회를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혹시자(或時者)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젊은이의 천부적(天賦的) 가능성을 심판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풍토를 마련해 주는 협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이나 위협으로 자라오르려는 죄를 짓밟는 포획자(捕虜者)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모든 어린이를 언제나 신성한 인격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살 권리 가지고 있는 생활과 세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성인의 축소판도 아니며 그의 완성들도 아니고, 저의 명령에 맹종하여야 하는 괴두리지도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

주여, 저로 하여금 교사와 하여 어린이의 인격과 자유와 권리 를 유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사의 지리를 이용하여 어린이를 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의 의견을 무리하게 부과(賦課)하는 대상들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돋는 협력자요, 동반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올바른 성장이 저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기도〉 '스승', 서시(詩集)

오헌석 박사가 남긴 간절한 이 기도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누구라도 감복하고 감동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교사의 모습을 잘 전해 주고 있다. 이미 80여 년 전에 우리 교육의 목표, 교사의 본분은 잘 정의되었다. 그것이 왜 이처럼 잘못된 것일까? 지금이야 말로 다시 천원 오헌석 박사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바로 그 때인 것이다.



■ 여성동문회 - 이사회 개최



지난해 10월 23일(금) 양평에 있는 꽃과 꽃의 정원 세미원(洗美苑)에서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가졌다. 모처럼의 여유와 만족의 감동 속에서 여성동문회의 발전과 단합을 다질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淸言會 신임회장에

李東植 KBS 정책기획센터장

淸言會는 지난해 12월 16일(수) 부민옥에서 송년회 결·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KBS 정책기획센터장인 李東植(英·72人) 중문율, 충무에게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廣在賢(國·77人), 林昌建(英·78人), 張在烈(勃·75人) 등문율 선출했다.

李 신임회장은 李東植 前 회장의 劳苦를 치하하고, 異議을 맙아 最善을 다할 것이며, 특히 모임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淸言會의 활성화를 일으킬 것임을 다짐하였다.

참석한 회원 모두는 신임 주 회장의 활동에 기대를 걸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고 폭탄주를 한순례에 들리며 한 번 더 다짐하였다.



이동식 신임회장

■ 清涼會



청량회(회장 尹龍赫, 韓60人)는 지난해 12월 17일(토) 양재역 부근의 음식점에서 3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한때를 보내는 아위음을 담대하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의 구상을 그려보는 송년회를 어느 때보다 활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졌다.

蘇東治(蘇61)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결속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는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淸公會 회장 金京會(金74), 淸言會 회장 李東植(英72)의 본회와의 우대강화 및 축사, 밖내 李秉林(李61), 신임회원의 소개 및 인사말을 듣고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노래자랑이 그 뒤를 이었다. 鄭虎慶, 沈상경 전 국회의원의 노래실력을 감탄을 연발하고, 蔣慶熙 변호사, 朴泰翰 STS대표이사, 李喜子 명예교수 와 여러분들의 홍광은 노래로 즐거운 송년회의 맘을 만끽하였다. 다음해에는 더욱 알찬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디딤을 마지막으로 교고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본회는 지난해에 민족사학하고 방문, 이효석문화관 등을 방문하면서 든든한 동창애를 다졌고, 격의없는 대화의 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임장소도 다변화를 꾀하고, 격식도 막강하지 않도록 노력중이다. 동문들의 명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본회 안에 변호사, 판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들의 모임(가칭 COB포럼)을 준비중에 있으며, 신임회원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지적 유대로써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각개인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종업자 중 교직에 있지 않은 자, 시무관이상의 공무원 등이 회원자격이 있으므로 본회에 관심있는 분은 아래 소개된 회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高禮燮(高65) 017-252-5483, 李秉林(李65) 017-252-2723

會員 入學年度 표시에 관한 안내

그동안 同門 會員들에 대하여 卒業回數, 卒業年度, 入學年度 등이 혼용되어왔으나, 많은 동문들이 入學年度(學年) 위주로 記憶하고 있어, 本會에서도 入學年度 위주로 記憶하기 하였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例. 20回→63 35回→78 48회→01

60年卒→66 75年卒→71 98年卒→94

단, 卒業年度의 入學年度 표기는 4년 만에 졸업한 경우임.

休學 등으로 入學年度가 다른 경우에는 연락하시면 정정해 드립니다.

■ 金在浩(生·53人) 명동안과 원장

金在浩(海寧동안과원장,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원장은 지난 2월 10일 코알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중구동 중구신문 창간 2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5년간에는 대한안과학회가 수여하는 대준안과봉사상을 받은 바 있다.



체제를 이루어 교직원과 학부모를 통한 자녀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서울시 교육청 산하 22개 도서관의 생활지도, 서울시 각급학교 모범학童 표창, 안으로는 회원들의 정기연수, 수연회 그리고 각종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서울교육 삼학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 李基盛(國·58人) 韶大 명예교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취임
이해숙 등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3년간 봉직하고, 청소년상담원장을 역임한 뒤, 최근 2009년 3월 2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등문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상담이론과 상담실무능력을 겸비하고, 청소년 상담학에 근거한 유능한 상담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徐한생(國·64人) 전 국회의원, 일세방송 회장

서한생(前 의원) 회장으로 있는 인천광역시 인터넷교육방송(www.ibse.co.kr 일세방송)에서는 사교유비를 절감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Start」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GS건설이 이에 협동하여 8억원의 장학성금을 채택하여, 인천의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학생 1,200명을 선정하여 일세방송 1년간 전과목 수강권과 교재 일체를 장학으로 무상 제공하며 벤도평교사에 의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전개한다.



■ 卞柱仙(英·60人) 본회 회장



古稀 기념문집 간행

卞柱仙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박희석·여성비주미대상 수상 그리고 봉사4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마련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 기념문집 출판기념회도 함께 가졌다.

기념문집은 국내외 지도자들의 축하와 감동의 글, 그리고 70년 세월을 축하하는 남편 김광태 RI 의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활만난 슈퍼우먼이라면서 전장을 기원하는 글들이 실려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말레이시아 Azizah·공주, Amelita 세제길스카우드 부회장, Bagalso 필리핀 길스카우드 연맹총재, 김정숙 한국필스카우드 총재가 비롯한 국내외 여행지도자들과, 이동건 국제교토리비전 회장, 이구장 RI 의사, 오재경, 재희령 전 RI 의사, 이상주 전 부총리, 김성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용련 전 교육부 장관, 한국코티리 국제단 등 5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자원 국제밸클럽 이사장의 사회로 SBS 김경채 예술단의 특별공연으로 흥을 돋우며 차분히 가는 한해를 즐겁게 했다.

■ 袁漢謙(國·68人) 서울대 교수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에 선출

우한용 모교 교수가 지난 12월 7일 열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경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우한용 신임회장은 「학문·한학계의 국내외적 소통을 도모하고 학회의 창조적 에너지를 짚결하는 대 중장을 두겠다」며 「학문과 학회의 성장을 통한 도약과 함께 한국학문 전통의 확립, 학문 후계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학총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일기는 2년이다.

우 신임회장은 한국현대문학을 전공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국어국문학회장과 현대소설학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문학교육론』, 『한국현대소설집론연구』, 『소설교육론』 등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997년 12월 4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생명과학, 복합학 등 모든 학문 분야 학술단체의 권익과 대표성을 위해 창립됐다. 현재 국내 666 개 학술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총은 다양한 학문간 친밀한 협력, 학술정보의 상호교류·촉진, 학회활동에 필요한 기본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술단체의 권익보호와 정부의 학술·연구관련 사업의 역할 등을 맡고 있다.

■ 柳子學(佛·68人) 동문

한국문화상 수상

諾人이며, PBN클럽 부회장인柳 駿문이 지난 29일 PBN부문에서 제46회 한국문화상을 수상했다.柳 駿문은 SBS에서 명예설위원으로, 라디오본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현재 국제코티리 3650 지구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 芝溶會·신임회장에

국제밸클럽 부회장인 諸人 柳子學 본회 부회장이 「芝溶會」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芝溶會」은 鄭芝溶 시인의 시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창립되었다.柳 駿문은 지난해 12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46회 한국문화상 시부문에서 수상하였다.



■ 尹雄燮(數·61人) 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교육 상학회 회장에 취임

전문지식을 갖춘 학직교원들의 교육관련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교육 상학회는 지난 12월 23일 제49회 총회를 열고 3인 공동으로 제22대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번에 추대된尹 문분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고등학교 교장, 교육인재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풍부한 교육 경험으로 향후 재임 기간 중에는 바야흐로 회장과 협력

■ 具寬濬(朴·70人) 등문

대구산업정보대학 총장 취임

1월 14일, 具寬濬 등문이 대구산업정보대학 제12대 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4년 1월까지 4년간이다. 具 등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교육국 국장과 고용정책제작위원회 위원장, 경제홍보관련부 실장, 홍익대 교수,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KBS 사장을 각각 역임했다.



■ 智昌勳(致·71人)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사장으로 승진

2009년 12월 30일 대한항공은 지창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智 등문은 대한항공 여객영업부서와 호주, 미국, 중국 등 해외 지역을 30년간 거친 예전 영업통으로 지난해 1월부터 화물사업본부장을 맡아 왔다.



■ 李元熙(熙·71人)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수상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제18회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교육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대한 무궁화 중앙회(회장 양승희)가 주관하여, 시상식은 지난 2009년 11월 27일 오후 6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 宋光謙(謙·72人) 서울교대 총장

교육형 정학회장에 선출

송광준 서울교대대학교 총장은 지난 10월말 실무원 선거에서 제38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으로 2010년 1월부터 시작했다. 송 신임회장은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국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 李秉楠(英·72人) KBS 정책기획센터장

전총회 법·언론인 저술지원자에 선정

이동식 KBS 정책기획센터장이 지난 2010년 2월 24일 전총회법·언론인 저술·번역 출판지원 대상자에 선



정되었다. 이동식 실장은 KBS 보도국장, KBS 부산 총국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1~2년에 1권짜리의 수상집을 출판하고 있다.

■ 金聲烈(聲·75人)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제10회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해 10월 29일 ~3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초·중등교육·고등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 역량 평가, 교육프로그램 평가, 교육기관의 질 평가 및 평가 인증을 포함하는 평가에 관련된 행정들을 주제로 아시아, 북미, 유럽, 대평양 지역의 15개국 교육 연구자 및 전문가가 참가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 千慶英(敬·75人) 충남대 교수

한국교육학정보원 원장에

천성영 등문이 2009년 12월 1일자로 한국교육학정보원 원장에 임명됐다.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인 千 등문은 이명박 정권 초기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 馬亨植(社·75人) 금오공대 총장

몽골 친선hon장 받아

우영식 금오공대 총장은 2009년 9월 한 국을 방문한 몽골의 훈군 정체자문관으로부터 몽골 대통령이 주는 '몽골친선hon장'을 전달받았다. 몽골 정부는 우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자내면서 몽골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宋真鎬(朴·79人) 서울대 교수

동아시아 과학교육학회장에 선출

송진운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가 지난해 10월 22일 대안 타이베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과학교육학회(BASE)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BASE는 지난 2007년 한·중·일·대안·홍콩 등 동아시아 5개국의 과학교육 전문가들이 상호협력·교류를 위해 만들었다.



■ 李榮德 전 國務總理 별세



교육과 5회 졸업생으로 国務總理를 지낸 李榮德 등문이 지난 2월 6일 향년 84세로 별세하였다.

정부는 후 전 총리의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南北赤十字회담, 2002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주도 등의 공로를 인정, 국인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였다.

李 등문은 30여년간母校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교육학회장, 교육개발원 원장, 남북저십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대한교련회장, 명지대 총장, 통일원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제대로 된 教育監을 뽑자

- 師大 同門들이 앞장서 -

오는 6월 2일은 지방선거의 날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 및 단위 행정의 장과 의원 선출은 물론 각시도 교육감과 교육 위원회를 함께 뽑는다.

일부 언론조사에 의하면 주민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모든 국민 대부분은 자녀를 두고,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교육을 책임지고 총 지휘하는 교육감의 선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교육의 성과는 法律이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교육을 하나의 직업으로 살고, 立身成名이나 聖賢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教育의 首長으로 뽑는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우리 認大 동문들은 이번 教育監 및 教育委員 선거에 관심을 갖고, 가족, 친지와 더불어 꾸준히 참여하고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산적해 있는 教育課題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상황

- 이 경복(李敬鉉) / 國語 · 69人

직업 : 미기재

경력 : 전 서울고등학교장

전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장

- 이 원희(李元熙) / 國語 · 71人

직업 :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3대 회장

경력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

- 박명기(朴明基) / 體育 · 78人

직업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경력 : 제3, 4, 5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현) 교육재정설비기구 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김 실(金實) / 地理 · 60人

직업 :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력 : 인천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천부평고등학교 교장

■ 인천시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상황

- 오재근(吳在宮) / 體育 · 67人 (제2선거구)

직업 : 미기재

경력 : 전 부기고등학교 교장

- 이강식(李康植) / 體育 · 67人 (제2선거구)

직업 : 교육위원

경력 : 전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전 삼산고등학교 교장

■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상황

- 윤종건(尹鍾健) / 교육대원 · 75人

직업 : 무직

경력 : 전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장

현 제32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전북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상황

- 고영호(高永鎬) / 體育 · 69人

직업 : 교수

경력 : 전 전북대 사범대학장

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

■ 서울시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상황

- 강호봉(姜鶴鳳) / 數學 · 58人 (제8선거구)

직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경력 : 강신중·강신고 교장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제5대 전반기 의장)

■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상황

- 나근형(羅根衡) / 數學 · 58人

직업 :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력 : 인천교육위원회 의장

인천부평고등학교 교장

〈학사〉	장동만	심미진	신주영	윤혜준	지구과학	정도진	〈화학전공〉	이정희	이명규	천공	해두성
3429	정무영	안소현	신지영	이철규	교육	조연수	권대경	최지예	이윤진	김수정	신명환
과학교과	정현주	오동한	심소현	외국어교	김재승	조준희	김민정	최지예	김효정	장우석	차현경
개	조성화	오영창	심수민	국어교	김희애	최규영	김명호	장우석	김효정	정재호	한석진
강다면	차승원	유승준	안수현	국어교	문종한	차원애	김지명	정재호	안재호	과학교과	(화학전공)
강민수	제료전	이병학	안용준	국어교	강소연	박태진	박상은	전공	조진우	이주평	(화학전공)
강병철	최경민	이경민	안지연	국어교	고은별	서유미	홍보현	자원	외국어교	원동파전	문화아
고현아	최대리	이정호	안지현	국어교	고은별	윤동숙	황현주	권택현	화이트	환경교과	양한호
고은별	최자인	이정후	안한규	국어교	이유재	〈색사〉	유예원	김기훈	전공	전공	교과학
권수진	하동완	임현아	유정민	권수진	이재우	〈82평〉	이민우	김다은	김우진	후인희	김선희
김경훈	하성수	경기방	이유정	권수진	이지표	〈고화학전공〉	정신경	김예민	외국어교	신설학	김경률
김근도	한지원	정민아	이도감	권수진	김가영	〈물리전공〉	서리	김예민	화이트	전소영	류예현
김기훈	홍경민	정예현	이소은	권수진	조은별	〈화학전공〉	이연	김보미	화이트	최현지	배경인
김명진	황민건	조민아	이영호	권수진	김민술	조종선	강선영	김가연	한계원	한계원	파생원
김민수	황재영	조보민	이재현	권수진	김기보	한자수	김나현	김기현	국어교	한계원	가설교과
김민자	교육학·	조재지	이은총	권수진	김기운	〈교육공학〉	국어교	유성은	한국어교	한계원	박소영
김민환	물리교과	최은혜	이은총	권수진	김기운	전공	전공	박주연	화전공	박대경	신미란
김종운	교과	최자민	이은총	권수진	김기운	교동식	박세현	김명비	이수진	자원	이어과
김시연	김종훈	호승수	임단규	권수진	김기운	김명훈	박숙진	이민경	이민경	협동파전	이주영
김성령	김다영	임도연	백민주	권수진	김기운	박자용	김미나	김예진	박주영	화이트	밀리포드
김선희	김해원	임동한	박정호	권수진	김기운	안경용	이명규	박주영	이둘수	이전경	전현우
김소연	김성진	윤우리	박정호	권수진	김기운	오미란	류은경	신반수	임수연	화이트	최소영
김수경	김소영	이동주	정아연	권수진	김기운	이민재	이민경	장주연	장주연	화이트	하이린
김승업	김실험	임자혜	정경미	권수진	김기운	이시영	이정민	신재홍	최혜연	화이트	이소
김승우	김유경	장우희	정경명	권수진	김기운	박정명	이정민	고유린	고유린	성민선	국어교과
김의연	김진우	정경명	오정우	권수진	김기운	조연수	김현경	김기현	김기현	손다례	(국어교과)
김혜원	최수진	주민정	오정도	권수진	김기운	체육교	전호정	한지민	김정석	이보현	전공
김정민	김호정	최우연	오승호	권수진	김기운	체육교	최선	사회교	김주연	협동파전	김보태
김대현	김호보	최근호	왕민근	권수진	김기운	체육교	사회전공	현은경	김기용	마술교과	배재경
김현섭	유예미	고명후	원숙진	권수진	김기운	권숙진	권숙진	김예진	박병진	전공	이해수
나유진	박민선	하수민	유재희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김재현	김아름	박은애	권주원	국어교과
박유경	김한울	수학교과	유인희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김현정	김운해	장지평	(한국어교과)
민기원	박우중	김래현	유재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사회교	김기현	김운해	장지평	전공
박무성	박우지	김래현	유재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사회교	김기현	김운해	한동희	한동희
박상미	박윤미	조자한	유재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박재승	박호근	들이교과	김우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박기수	성가혜	김기연	김우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박기자	신중휘	김기연	김우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박기석	우예령	김기연	김우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박상민	유가현	김기연	김우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백미나	윤현식	박시온	김우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손아원	이기연	송진명	김우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신나라	이주원	이유민	손용한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신재명	이주현	최현아	신정호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양기습	이제지	사회교과	신수호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제지	이제지	신수호	신수호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기	신재명	신재명	정한길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오호립	임인우	유대영	정해운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유승진	최형운	김진호	이종준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유기민	유기민	김기연	이민수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유기수	김명화	김도세	이성기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유기수	김명화	김수연	이운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유기수	김명화	김수연	이운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윤혁서	김승기	김수연	이운민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수현	김예진	김예진	임종선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아람	김재홍	류연석	김기운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예진	박원경	남수진	임현경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주연	송다은	박원경	장영이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현진	신근법	박원경	정은지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현화	신동희	박원경	최명태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이혜리	신유진	박원경	최승재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임기영	신유진	신유진	신명은	권수진	김기운	김재현	전공	박은하	김기현	한동희	체육교과

외국어교	외국어교	나영은	체육교과	김희진	오성민	협동과정	환경교과	협동과정	미술교과	유아교과	음악교과
국어(영어전 종)	국어(영어전 종)	윤리교과	강명수	백종원	오경우	로교과	전공	가정교과	전공	전공	전공
김소현	김수진	서정민	장성민	신명진	이재후	전공	사은경	전공	김문경	김호현	김기현
데가빈	임성희	이연주	권현진	양명진	이솔	김경선	이리나	오정선	한형승	방주아	
		조석환	김희재	양중현	조성	협동과정	경세동	협동과정	협동과정	협동과정	

■ 2010년도 전기 졸업생 명단 ■

《학사》	김다은	박동글	김윤환	한상수	오호준	육상다전	조성옥	박민선	이진희	임경은	윤리교과
22회	김주빈	윤경민	김자예	김동근	윤리라	윤리교과	박민선	정소연	정재후	협동과정	사회교과
교통학	김효정	고아라	서성미	이지명	전은영	허온	국어교과	정소연	정재후	협동과정	사회교과
교통관	박정원	이아리	송명수	최원경	이화실	윤리교과	정재후	정재후	정재후	협동과정	사회교과
윤대웅	박정은	이정훈	조진우	김소라	후진나	윤리교과	전공	가정교과	전공	전공	전공
김기훈	이유선	지리교과	윤리교과	모소연	김용기	김명화	전공	가정교과	전공	전공	전공
신상인	이유리	김서린	강인수	고은솔	박상민	한용희	이혜경	이유원	김문경	김호현	김기현
오홍석	정희진	노신우	장성우	김설희	이재민	박기현	이재민	이재민	김기현	정연준	
우아미	김다솔	박철진	김정화	김윤경	손한국	이화실	윤리교과	원가민	박민선	박상현	2회
이현주	안선정	백기현	설태한	박윤희	이중진	윤리교과	전공	전공	정현수	교통학	교통학
김우리아	유승은	이웅현	정경호	매윤주	이상길	윤리교과	전공	구희정	구희정	전공	전공
김유진	이승희	황상운	신우민	이주미	임병렬	박주형	매화순	남미자	박성민	박성민	박성민
김혜연	최자은	김봉식	김기자	이시명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박기현	박기현	박기현	박기현
박지혜	최자예	김지영	박성준	이효선	정연경	선우현	선우현	한기애	정현우	정현우	정현우
조예승	백경원	오규민	유정훈	조주연	제승연	제승연	제승연	구선아	국어교과	국어교과	국어교과
최인영	이보미	전철식	장종우	최승우	최진우	최진우	최진우	최진우	최진우	최진우	최진우
장자영	김철호	제갈영	전형민	지구과학	이도업	이도업	이도업	이도업	한동관	한동관	한동관
교유원	윤신연	황정희	자방구	교과	1회	국어교과	사회교과	장현우	장현우	장현우	장현우
국어교과	윤신연	강현애	황수민	임현택	교과교과	국어교과	국어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장재희	이다정	임민선	김태은	김동우	윤리교과	윤리교과	윤리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김동희	이미란	전지현	안민기	김민석	윤리교과	윤리교과	윤리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이안철	임다영	김수민	화현교과	백주원	안효경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김은경	박정선	이주현	개성일	김현길	양일파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손혜진	돌어교과	윤리교과	김명호	조현태	김윤희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정철원	김태한	김종성	이근범	김승연	유예명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김소산	이화완	오경희	주소연	윤은혜	윤리교과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이예원	예은원	박은일	김덕수	남빛나	윤리교과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서리	김려진	권성훈	자우경	하동우	윤상호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안희진	김소진	정소진	정신영	김승철	표호진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이가영	이지혜	이유현	자아현	이재철	박정민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정보미	최민아	김원경	박선주	박수진	이용현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김유진	사회교과	이승철	정선혜	백종미	이지명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이미란	유지영	최성훈	하우실	백재민	김우희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영어교과	김신숙	권태경	권태경	신다현	장정명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쪽경식	박준규	이승학	박상운	김미진	윤재필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한정희	이화영	이재우	김우진	김우진	김미현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허준혁	한정영	김병주	박자령	김정권	김우진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축연도	금정미	김윤균	서보연	홍승환	김우영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박병희	김소라	김충길	양지훈	죽은수	김미진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이주원	이주원	권민기	이민우	죽은수	이규희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이준희	장미선	이인희	이재현	김대현	김우화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장승민	노현지	전호재	최기현	김나영	김호진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김은경	김지후	허정희	최성혜	송민경	김송근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강민경	김은자	최진영	이한얼	김일수	김수미(자리)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김현정	최현중	역시교과	이은수	김미진	박소영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김규원	윤민희	생물교과	김미란	서아영	서영경(자구)	화현교과	화현교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2010년도 동창회 입회비 납입자 명단

광명 기수(학)	김우리아(교육)	조진우(수학)
김미진(사회)	노현지(사회)	허은수(화학)
조승우(교육)	김송근(생물)	현은정(영어)
김수미(자리)	김성미(수학)	홍승환(체육)
김승철(체육)	서영경(체육)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변주선)

천재교육의 藩宮庫 회장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액수의 차이에 재년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관 건립 기금 신규 출연자 (2009. 10. 28.~2010. 2. 28.)

최병호 (회·57) 300만원	최상규 (회·65) 30만원	송호열 (시·79) 15만원	최지영 (액·89) 10만원
김소희 (교·54) 100만원	김명훈 (교·49) 20만원	권순용 (교령·61) 10만원	
황선용 (사·57) 100만원	김명숙 (교심·54) 20만원	곽행기 (제·71) 10만원	

동창회비를 납부합시다.

본 동창회는 韓大 전체 동창회의 活性화는 물론 각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정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변주선)

◆ 회비 내역 ◆

● 출자금원 : 100,000원 이상
● 출 금 : 2,000,000원 이상
● 출부 회장 : 500,000원 이상
● 출금 : 300,000원 이상
● 출 상임이사 : 200,000원 이상
● 출 이사 : 50,000원 이상
● 출 일간회비 : 20,000원 이상
● 출 정상회비(1회) : 200,000원

■ 회비 납부자 명단 (2009. 10. 28.~2010. 2. 28.)

■ 회장단·임원회비 ■

이상주(교문, 교령·59) 10만원

■ 평생회비(20만원) ■

조혜자(경·여자·40)	주석시제·57)	곽혁기(제·71)
최기남(제·52)	이충원(제·57)	김환길(제·73)
김재호(광·53)	박언근(광·59)	박승원(광·79)
김소희(교·54)	권운정(제·61)	송호열(제·79)
홍석필(광·54)	심미혜(제·61)	
조경화(광·55)	민무일(광·65)	

■ 일반회비 ■

서울대 사대부여중(27) 김은영(제·89) 0원석(제·69)

정·54만원 이수정(제·90) 서울대사대부중(358)

유서현(제·74) 70만원

최연식(제·88) 정경원(제·93) 3천원

배현기(제·93) 안혜정(광·99) 이수성(국·89)

우지원(제·88) 오현숙(광·99) 이재진(국·80)

윤호설(제·88) 서울대사대부고(16명) 노재현(국·80)

한미주(광·88) 3천원 김기현(국·89)

오지은(수·88) 정경원(광·79) 김경현(국·90)

한혜숙(수·88) 유경선(제·89) 김경숙(국·90)

체은희(수·89) 이재희(제·80) 손경미(국·90)

나미영(수·89) 조동석(수·89) 홍경희(광·89)

이자연(수·89) 윤명진(광·89) 이현숙(광·89)

김개선(국·89) 배의숙(국·79) 박상근(광·89)

김연기(국·89) 남종규(사·89) 정호경(광·99)

김민수(국·88) 주세희(제·89) 배리원(광·99)

서태진(국·88) 오현숙(광·89) 이수희(사·80)

홍우진(국·88) 신경희(제·80) 강경수(광·89)

김경미(국·86) 김경숙(광·79) 김진진(광·99)

배희숙(수·86) 손건진(국·89) 김은진(제·80)

이은희(국·86) 이은희(국·89) 문대경(국·89)

김은아(광·89) 정기준(국·89) 김도건(광·89)

이은서(국·89) 이경희(국·89) 조기식(광·89)

김봉규(82)	김종현(40)	정우상(59)	3년 원	김명숙(7)	2년 원	이원식(55)	2년 원	윤석원(88)	3년 원
김운중(83)	정 준재(9)	백경호(57)	2년 원	송옥희(59)	2년 원	양일식(57)	2년 원	정정호(72)	3년 원
김수미(87)	(경여사)	김선식(59)	2년 원	김혜우(60)	2년 원	(화학)	(가장)		
이경은(수9)	임종남(연9)	1년 원	권경숙(59)	2년 원	황종희(59)	2년 원	전경년(49)	2년 원	김순례(55)
신지경(수9)	(교육)	(영어)	(자리)			윤학진(59)	3년 원	조혜자(80)	2년 원
정수진(수9)	백인식(49)	2년 원	한경희(49)	2년 원	정신호(59)	2년 원	(성績)	(체육)	
서정아(86)	유봉호(49)	1년 원	이병우(50)	2년 원	이종석(59)	2년 원	정근홍(49)	2년 원	정승용(49)
세정미(86)	(교실)	민경업(59)	2년 원	(수학)		노두호(50)	2년 원	한경숙(54)	2년 원
금주혜(중4)	진희현(59)	3년 원	유경숙(79)	2년 원	도경복(50)	2년 원	이정태(55)	3년 원	홍운파(54)
최숙희(자78)	한수민(59)	3년 원	송경란(69)	2년 원	이상규(58)	2년 원	윤석호(82)	2년 원	
남 은(자구9)	(국어)	(사회)		김지연(70)	2년 원	장선식(59)	2년 원	김지연(65)	2년 원
김준원(체9)	박종대(59)	2년 원	우봉호(59)	2년 원	(물리)		백현해(74)	2년 원	
신현주(체8)	임홍선(59)	2년 원	(역사)	강 옥(59)	2년 원	(자연)			

* 기금, 회비 납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0 동문 친목 등산대회

2010년 친목등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학교와 직장, 동호회별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10일(土)

- 집합시간 : 오전 9시 30분 (점심시간 집합 : 12시 30분)

- 집합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뒷편 잔디밭

- 참 가 비 : 등산대회는 A, B 조로 구분함.

(A조는 본격적으로 등산하실 분, B조는 쉬운 코스를 등산하실 분)

중식과 기념품은 본회에서 준비함.

준비 관계로 참가 여부를 사전에 본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전화) (02) 6399-6500

- 교 통 편 : 지하철호선 4선 대역 하차(4번 출구) – LG주유소 뒷편에서

마을버스 02번을 타고 교수회관 입구 하차

*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2010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2010년도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로자 하으니 동문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28일(金) 18시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신세계홀

- 행 사 : 1부 청관대상 시상

– 사도상 – 학술상 – 공로상

2부 정기총회

(1) 결산(안) 심의

(2) 회칙 개정

(3) 임원선출

- 회 비 : 20,000원

* 준비 관계로 꼭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점유율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에러는 해석의 오류를 낳습니다.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전문가와 시스템이 만듭니다.

교과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차우치면 사고도 기울어집니다.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30년 역사와 원칙으로 만듭니다.

교과서는 새로워야 합니다.

정보가 고루하면 지식도 새로울 수 없습니다.

천재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점유율 1위 –
대한민국에는 천재교육이 있습니다

교과서 1위, 천재교육이 앞서갑니다.

- 중·고교 교과서 총다 합격
- 중·고교 교과서 점유율 1위
- 국내 최고의 면적 전문 인쇄 회사
- 최첨단 자동화 공정 시스템 구축